

수직 · 수평선, 면, 곡선과의 대화 건축가 민성진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 건축가 민성진. 기존의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모방한 것이라면 이미 죽은 건축물이나 다름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그는 모험과 실험 정신으로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건축가 민성진을 그가 디자인한 압구정동 SDA 건물 3층의 SKM 사무실에서 만났다.

에디터 | 김소진 · 사진 | 노현우

기하학적 구조의 건축물 SDA 사옥 안에 자리 잡은 민성진 건축가의 SKM 사무실. 그의 작업실에는 그동안 진행해 온 건축 조감도와 다양한 모형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헤르만하우스, 아산 배방 · 화성 동탄 복합단지, 성북동 갤러리, 힐튼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까지. 이 모두가 건축가 민성진의 손을 거쳐간 작품들이다.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서 SKM과 그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 왠지 낯설지 않다.

벽과 지붕, 창문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건축 자재를 굵히고, 꺾고, 휘어서 생동감 넘치는 구조로 설계하는 민성진의 작품들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른 조형물처럼 보이고, 마치 생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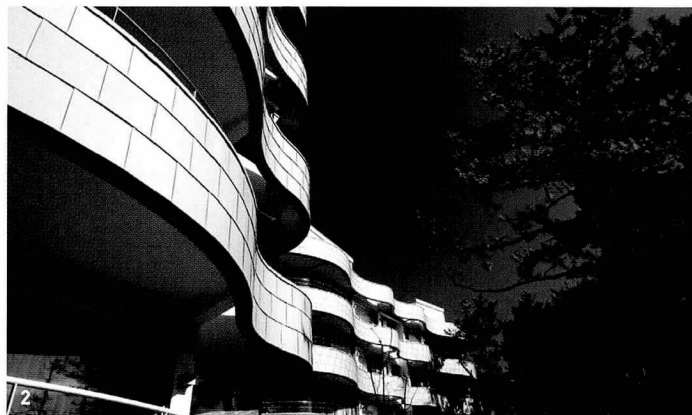
다. 징크(Zinc), 티타늄(Titanium), 프로데마(Prodema) 등 특수 자재를 사용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실험 정신으로 접근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해체주의적인 건축 양식이 엿보인다. 그의 작품을 보면서 민 소장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그래서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욕망과 의지를 끊임없이 표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캘리포니아대학교 건축과와 하버드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한 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SKM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한 그는 1999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비롯해 2005년 서울시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현상설계 최우수상 수상 등 건축업계에서 꽤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중국, 사이판, 북한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하나의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설계하는 일에 뛰어들어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존의 통념과 정해진 방식을 깨트리고 독특한 설계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 민 소장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들은 서울을 ‘회색 도시다. 망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청계천, 광화문, 남대문 등 서울 곳곳에서 기존의 도시 모습을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죠. 생명체는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서울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 붐에 이어 타운하우스 등 친환경 주거시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바뀔까?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하이테크한 건축물들이 빼곡히 들어서게 될지, 아니면 웰빙, 로하스 열풍이 계속 이어져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들이 대세를 이루게 될까? 이에 대해 민 소장은 “앞으로 도심은 도시의 기능을 증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들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은 도시민들의 정신적인 스트

1 수줍은 웃음이 서려 있는 민성진은 건축 이야기를 할 때 견고한 자기 세계를 드러낸다. 2·3 최근 작업을 마친 힐튼 남해 골프&스파 리조트. 4 민성진의 첫 작품 성북동 갤러리에서도 그만의 감각은 움츠러들지 않는다.



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들이 들어서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은 교통 여건이 나쁘고 강북과 강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연계성이 없어서 도시로서의 효율성과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서울은 더욱 집약적이고 효율성과 기능을 강조하는 고층 형태로 변모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뉴욕 맨해튼과 시카고가 고층 빌딩들이 밀집한 현대적인 도시 형태라면 이집트, 런던, 파리에겐 수백, 수천 년의 역사와 인류의 문화가 담겨 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도시 문화를 지니고 있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들 도시처럼 서울은 아시아의 동양적인 멋과 현대적인 미학을 조화시킨 특별한 그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건축가 민성진.

민성진은 변화하는 서울, 그리고 세계의 도시 중심에서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의 물꼬를 틀 만한 획기적인 건축물이 도시민들을 자꾸 자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는 그러한 건축물을 도시 한가운데 그려넣으려고 잘 깎아놓은 연필을 잡고 있다. ☺

